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99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0월 15일(음력 8월 24일) 일요일
법공양 페이지

B21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부산의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더불어 신도님들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서툴러서 실례가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 자유를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진의를 완전히 터득해서 알아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불교(佛敎)가 머리 깎고 목욕 입고 목탁 치고 염불 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의 생명이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또는 뜻과 뜻으로 통하고 말과 말로 통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교(敎)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요.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듯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 진리가 불교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어떠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불(佛)이요 풀 한 포기 생명도 불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가 끊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들어 있습니다. 풀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은 직결이 됐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생(共生)이며 공심(同心)이며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供食化)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도 예누리 없는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요. 소가 가다가 언덕을 보고서 비비니까 언덕이 하는 소리가 “하하! 언덕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나한테 와서 비비는구나!” 했답니다. 그래서 소의 뜻을 하지 않았더니,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인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오계(五戒)를, 다섯 가지 제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戒)할 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겁니다. 물질세계에서 겉으로만 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뜻으로 풀리고,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써 채찍을 삼고 모든 권속들하고도, 사형 사제들하고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 간다면, 그리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마음의 계(戒)가 되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마음의 자세가 슬기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나 아닌 나로부터 가리지 나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나를 빼지 않는다면 집합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통이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든 누구에게나 다 광역 전력 지역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데 바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 줄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광역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충만

하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 자체가 업식이 돼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입력을 해서 쓰지마는 우리에게만 오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속을 아는 것이며,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가고 올이 가고 오는 것이며, 심안으로 보는 것이며,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며,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아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숙명통과 더불어 다섯 가지가 한테 합쳐져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

것이요, 또는 세균성이 와도 영계성이 와도 업보성이 와도 유전성이 와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온 데다가 되뇌라, 나온 데다가 믿고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구경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무변하면서도 그렇게 엉뚱하게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업 선업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각자 몸통이 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혼합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키고 싶어서 어느

서 같이 중용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무 살자고 남의 뿌리에도가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의 나무를 쳐다보고 남의 나무뿌리를 쳐다보고 내 나무를 키워 달라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부터 보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으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 가는 줄 아십니까. 차가 가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운전수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바로 양면을 다 움켜잡고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로 육신과 영원한 근본인 뿌리와, 즉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을 내는 법,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시공

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지금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 살이가 바로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걸음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고정되게 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천수만의 생명체와 의식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수화풍도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쳐지니까, 화목하게 합쳐지니까 밝은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밝은 세상이 오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못 믿겠거든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진화해서 쫓고 쫓기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이 돼서야 여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은 만날 각자 내가 살고 내가 됐고 내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통이는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즉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박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요 관리인입니다. 이 몸통이는 바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또 사대 성인들께서도, 많은 조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는데 중생들이 배 안에 잔뜩 탔으니 선장이 노를 띄우면 잘 저어 나가야만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수보살이 유마힐 거사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야 내 몸이 낫겠노라.” 한 뜻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의 자생중생들이 병이 나야야 여러 몸이 건강하죠!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중생들을, 내 몸속의 중생들 병이 다 나야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깁니다.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평등공평 봉에 모두 한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직결돼 있고 한도량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력이나 금속이 어디든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통해서 바로 몸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천백억의 보살로 화해서, 바로 천차만별의 응신으로 나타내면서 천차만별의 중생들한테 자동적으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백억이라든 바로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끝이 마세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는 자생중생들을 제도하러,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잠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 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가 다 봐야만 합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통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



그림 · 최주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르다면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된 데다 다시 놓지를 알아서 다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데다가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애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간 대로 새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데다 되돌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 모두를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거기에 염매이고 염매여서 팔자나 운명이나 하는 그 모든 고의 테두리에서, 또는 업의 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기가 팔자 운명도 마음대로 못할

부부의 정자 난자를, 몸을 빌립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를 그렇게 형성을 시켜서 바로 자기 모습을 앞장세워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자 바로 불성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뿌리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무뿌리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나무는 자기 뿌리가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빌고 온통 야단법석이나 그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시켜

라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타내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그렇게 엄청나고 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딱 종교에서는 마귀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앉아서 그냥 귀신 놀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빌고 온통 야단법석이나 그렇게 해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시켜